

加意要求하는 것도 아니다. 죄어도東京留學生과京城佛專生과 各道講堂代表 一人式은論할 것도 업시發起하는 당시에가면커參加를要求하는 것이 今番大會의本意에잇서々當然할뿐 아니라 吾家의剛鬚를圖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假令例를든다면 國家를두고말한대도 忠君愛國하고 國泰民安하려면 親제君臣이有義하여야하고 家庭을두고말한대도 祖先奉代와 和睦一致를圖하려면親제父子가有親하고 兄愛弟恭하는데잇지안는가한다. 그러라면當身내는吾敎釋家에서先進인만큼 우리의兄이될것이고 우리는아우가될것이아닌가 그러면우리집缺陷을完實의하고 우리집制度를改善하는마당에서 所謂將來敎界를憂慮하면서 未來吾敎扶持하려고 方今그對策을講究하는方法을研磨하는同時에 未久에그實地를體験하려면抱負와企待를갖고잇는 아우들을그리케도沒人情하게 돌나버리는것은 이무슨一家의有隙이며 이무슨家庭의不平이며 이무슨兄弟의不和한원인가한다. 그러니學生을拒絕한理由를아모리生覺해보아도알수가없다. 假令당신네가 學生은아즉도實社會에體験이 적은것만實地에 드러서도 幼稚할뿐더러 다만理想的의오氣分的의리더들기만하니 會員資格을안주었다하면 어찌것치册床을

돌나치고 吾生의몸을버서난당신네가맛치實社會體験이 깊을다는자랑에지내지못하고 또는學生이들면警察의注目이念慮라고해서學生을排除하였다면 勿論小學生을集할것도아니고 또는東京佛專講堂에서總出動하는것도아닐뿐더러 家庭制度改善에對한意見聽取하는데야警察의注目이何等의關係인가! 만일그러서拒絕하였다면 그야말로虛無한弱辯이다. 또學生은아즉工夫하는時期이니 單純의工夫만하기爲해서入會를안식했다하면 말만은感謝하나 양해치말한거와것치今日現實인朝鮮에잇서는 書冊을左手에들고 광의를右手에잡아야하고 더욱히敎界에잇서는「다라가드」의典籍에실니며잇는眞理를研究하는一邊으로 죄어도實地로敎界法體를運轉할勇士가하로방비나오기를要求하는 現下인줄도잘體験하고잇는여려분이아닌가한다. 그러나一家庭의和情으로나 兄愛弟恭의溫情으로나 先進修養인體而으로나 都無地어데로보아서또는 잇는條件으로排除하였는지그理由를 아모리거들<이生覺해보아도發見할수업는것만치 그反面으로참々하고도 味情한感이업질안라! 아! 發起한諸兄弟들이여! 이무슨失手이며! 이무슨未量인가! 차라리너의들은第二回繼發者가되여라. 우

리는先發者가되마」라는한마디만잇치때도얼마나칭찬한 것이나타나며얼마나칭찬情이생기겠는가!
아! 全鮮僧侶大會를發起한諸兄弟들이여! 당신네는 암히잇는青年을背反하고 뒤로衰殘해지는老婆로더부러

일하려는가? 또는今番大會를一時에完功을期하는가만 일完功을잇는대도머! 將來가잇지안는가! 그러라면 그將來의繼發者가또한누구인가發起하신諸兄弟들이여!

湖南雜感의一端

李 德 進

金剛君! 먼커나는君의對하야無信하였음을謝罪하노니 還大한抱負를가진君은 兄弟에無諒하고社會에對한罪人을容赦하지이다.

게되었다. 우저은生活를하게된것은말치아니하야도 天眼通를가진君은별서다알고잇는줄노생각하노라 그러나所感의一端이나情情은君의게 하소연하노니웃고바다지이다.

君의消息를못드를近一年만에 農大郭君으로부터君의 소식과君의化身인文面外지對하게되니 분득苦悲交集에感慨無量이로다. 金剛君이여 그대와오래동안江戶에서苦樂을것치하였다는것보다 精神과理想이것은甚調에서運身하여왔는가하노라. 君이여 墮落된나를 咀呪하는가? 唾罵하는가? 君의高意에오천해맏길일이요 나는薄水를받고서情情은君을몬이키랄다름이노리.
君이여世事가難測이것은우리의게이서々다시論할것임지만은 必然이라할가偶然이라할가暫時湖南에와서

去夏自熱的으로더운七月二十三日正午頃에山水風俗모든것이선光州驛을나리서생각하니 어대로갈지前途가茫々함에未知何向의이엇다.
桓常어더로가든지 佛陀님의胸田에자라나님의몸은下車即時로佛道場을찾게되었다. 그래서光州에오즉하나의仙岩寺布敎堂을찾게되었다. 天地는온천히火燭中에라는여름이지만은 佛陀님게시는道場만은清涼水로써리고樹梢風이나리듯이清爽한맛이가득하였었다. 法堂으로드